

국가지정사적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오카 성터

오카 성터는 다케타시의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대지 위에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후 800 년 이상의 역사가 이어졌으며, 대지의 급경사면에 줄지어 있는 견고한 돌담과 옛날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킨 우뚝 솟은 성벽의 흔적에서 에도시대(1603-1867) 성곽 건축에 관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오카 성터에서는 규슈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구주 연산과 소보산, 활화산인 아소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겐페이 전투(1180-1185)의 영웅,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經, 1159-1189)를 숨기기 위해 1185 년에 대지 위에 최초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나모토 가문과 헤이 가문이 전쟁한 겐페이 전투는 일본을 통치하는 최초의 무가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토모 가문을 섬겨 이 지역을 통치하던 시가 가문이 14 세기에 일족이 거주하는 성을 지었습니다.

1593 년에는 조선 출병(임진왜란)에 실패한 시가 가문을 벌하기 위해 당시 일본의 사실상 통치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가 시가 가문에 오카 성을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이후 시가 가문을 대신해 나카가와 가문이 오늘날의 효고현에서 오카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나카가와 가문은 1874 년까지 277 년 동안 오카 성을 거처로 삼았으나, 무가 정치가 끝나고 일본이 근대화를 시작한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아 1874 년에 오카 성은 철거되었습니다.

오카 성터에는 나카가와 가문이 세운 성곽의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상으로 향하는 길가에 있는 장엄한 돌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돌담 일부에는 권력의 상징으로 배치된, 거울과 같아서 ‘가가미이시(鏡石, 거울 돌)’라고 불리는 평평한 큰 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이 철거된 후에도 이러한 사적은 여전히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케타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유명 작곡가 다키 렌타로(瀧廉太郎, 1879-1903)는 이곳에서 영감을 얻어 대표곡인 ‘황성의 달’을 작곡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다키 렌타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